전동 보조기기 충전시설 확충

전주시,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 ·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위해 추가 설치 추진

최근 노령인구 및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인해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전용 충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이동 중 배터리 방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실내 충전시설 56개소에 올해 추가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야외 충전시설 4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올해 현재 전동보조기기 구매 지원자는 3000여 명으로, 전동 보조기기를 사비로 구매한 시민을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심야 시간대에도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 설치를 요구한 장애인단체와 이용자의 수요 및 요구를 적극 수렴해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 전동보조기기 충전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이동 약자인 장애인이 심야 시간에 충전할 곳이 없어 이동이 제약되는 사례를 겪지 않도록 장애인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설치장소를 추천받아 올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동 주민센터와 노유자시설 등 56개소에 전동 보조기기(스쿠터 · 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이번 사업으로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설공단,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난 상황 시 핵심 업무 지속 수행 시스템 구축…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KSBCM-334호)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는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BCMS)를 평가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는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 · 경감 · 대응 · 사업연속성 · 복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 · 운영 · 감시 · 검토 · 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경영시스템이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재해경감 정책을 선포하고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 훈련, 모니터링 등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6년 2월까지 3년간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1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ISO 22301을 획득한 바 있다.

전주시설공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KSBCM-334호)을 받았다. 조석원 본부장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현판을 달고 있다.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은 자연재해나 테러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최소한의 핵심 업무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하고 물적 ·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으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과 연계돼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재난 상황을 대비한 종합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비상시에도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설관리 · 운영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안전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고 공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참여서점 확대

전주시, 지역 서점 2곳과 추가로 서비스 추진 위한 협약 체결… 총 47곳으로 늘어나

도서 구입 시 정가의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에 가입한 지역 서점과 동네 책방이 4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삼천동 '그 섬에 가게'와 태평동 '책 피어나다' 등 지역 서점 2곳과 '2023년도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가입 서점이 기존 45곳에서 47곳으로 늘어나 더 많은 서점에서 도서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게 됐다.

신규 참여서점에서는 오는 4월부터 '책쿵20'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책쿵20' 서비스에 가입한 전주시민은 1만8100여 명으로, 시민들은 책쿵20을 통해 16만3830권을 구입해 약 5억 2000만 원의 도서 구입 비용을 할인받았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삼천동 '그 섬에 가게'와 태평동 '책 피어나다' 등 지역 서점 2곳과 '2023년도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책쿵20' 서비스는 전주시민 누구나 전주시립도서관 회원가입 및 '책쿵20' 서비스에 가입 후 즉시 도서 구입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서점 방문 시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회원증을 제시하면 된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서점 확대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서점 방문과 도서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택배서비스도 운영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발달장애인 위한 '도심 속 힐링공간' 체험농장 개장

전주시, 11월까지 대성동 치유농장 · 장동 치유농장 2곳 운영

전주시가 조성한 치유농장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발달장애인의 야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대성동 치유농장과 장동 치유농장 2곳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기조성된 대성동 치유농장과 장동 치유농장을 재정비하고,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참여를 희망한 12개 기관의 발달장애인 이용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 · 치유 ·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농장체험뿐만 아니라 외부자원 연계를 통해 △목장체험 △숲 체험 △팸투어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수확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만들기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마사회(장수목장)도 치유농장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장 투어와 말먹이 주기, 트랙터 체험 등 목장체험을 지원키로 했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한국마사회(장수목장)가 목장체험을 지원해 더욱더 풍성한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원예체험과 기관연계 체험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전주시 완산구, 지역구 시의원 초청 간담회 가져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지난 24일 지역구 시의원들을 초청해 2023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과 협치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엄익준 완산구청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완산구청 간부 공무원 등 3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변화로, 도약하는 완산'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에 그 뜻을 모았으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와 완산구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작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2023년도 전주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전라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만나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전북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완산소방서는 '최강소방관'으로서 기량을 뽐내기 위해 '전라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했다.

지난 24일 개최된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공무원의 구조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대회는 최강소방관(개인분야) · 구조팀(Team)전술 평가 · 기타분야로 나눠 가진 재량을 선보인다.

여기에 지난 21일 '최강소방관 경기'에 참가해 개인 분야 '소방호스, 사다리' 등 개인 기량을 뽐냈다.

이번 '구조팀 전술 평가'에서는 119 구조대 구조팀장 이형재 소방위 외 3명이 출전해 A~C구역 별 로프 견인, 장애물 통과 등 가상의 구조 현장에서 구조완료까지 안정성, 신속성, 정확성을 띄는 등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린 대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연마된 기술과 체력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